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193 호

2018년 11월 15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제 4회 Youth CSR Conference 개최 결과 공유 (11/3)
2. 2018년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포럼 개최 안내 (11/21)

■ 본부 소식

1. [본부발간자료] SDG Bonds & Corporate Finance A Roadmap to Mainstream Investments

■ SDGs 소식

1.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 목표 2 – 기아 종식
2. [SDGs 시장기회] 일상생활에서의 건강 실현
3. [SDGs 솔루션] 친환경 비건 의류

■ UNGC 회원 뉴스

1. 한국남동발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사회적 가치 창출
2. 국민은행, 착한기업 이어 여성친화기업 투자 이끈다
3. 컨선월드와이드, 2018 세계 기아 리포트 행사 개최

■ CSR 뉴스

1. '베트남 물 절약' 기여한 유니레버, '아프리카 농가' 살린 사브밀러
2.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과 청년들의 시그널
3. "사회적기업 육성, 2022년까지 일자리 10만개 창출 기대"...제 3차 사회적기업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2018년 연회비 납부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제 4회 Youth CSR Conference 개최 결과 공유 (11/3)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11월 3일(토)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전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SDGs Generation: Youth Signal for Sustainable Future (SDGs 세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년들의 시그널)"을 주제로 제 4회 Youth CSR Conference 를 개최했습니다.

금번 컨퍼런스는 미래의 지도자가 될 청년들이 CSR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UNGC 가치를 알리는 한편, 지속가능한 기업 및 사회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동 이슈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17 명이 실무위원으로 활동하며 주제 선정, 연사 섭외, 세션 기획, 홍보 등 행사 기획과 운영 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올해는 비즈니스 리더와의 대화, 특별강연, 분과세션, CSR 전략 제안 공모전 시상식, CSR 전문가와의 대화 및 매니페스토 채택 등이 이뤄졌습니다.

먼저,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책임 준수가 지속가능한 미래의 토대를 쌓아 올릴 것"이라며, "젊은이들이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민동준 연세대학교 부총장은 “기업은 더 이상 독립적인 개체가 아닌 하나의 ‘기업시민’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며 “기업경영의 필수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SDGs 등은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제 8 대 유엔사무총장이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명예회장인 반기문 사무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빈부격차, 부정부패, 기후변화 등의 난관을 해결하는데 있어 기업의 역할이 필수불가결 함을 청년들이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동 컨퍼런스를 통해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신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올바른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오준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전 유엔대사)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청년들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이어졌습니다. 오준 교수는 “SDGs 를 세계화의 나침반으로 삼아 ‘함께 가는 세상(leaving no one behind)’을 구현해야 하며, 보편적 가치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시민’으로서 청년들이 행동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즈니스 리더와의 대화> 세션에서는 조주희 ABC 뉴스 지국장의 진행 하에,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장, 정태영 CJ 대한통운 부사장, 김정태 MYSC 대표, 허미호 위누 대표가 참여하여 각 기업의 CSR 전략 및 기업 문화에 대해 소개하며, 더욱 포용적이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기업의 역할에 관해 열띤 대화의 장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최규복 대표는 “환경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시니어 일자리 시범 사업,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스마트워크, 여성 리더십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가치 창출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태영 부사장은 “OECD 평균 12.1% 대비 48.8%를 기록한 국내의 노인 빈곤율은 매우 높다”며, “CJ 대한통운은 본질적인 사업 영역인 물류·택배를

CSR 에 접목하기 위해 '실버택배' 사업을 시작하고, 이미 1,300 명이 넘는 실버 택배기사를 지역 사회별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정태 대표는 유엔에서의 첫 커리어를 통해 유엔의 목표를 비즈니스로도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실제 변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매료되었다고 소개하면서, 'Books International, 디자인씽킹 프로젝트, 햇빛영화관' 등 지금까지 구현한 사회 내 다양한 사회적 혁신 활동을 공유했습니다. 허미호 대표는 "한국 아티스트의 창작물을 사회에 노출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태계와 환경을 만들고, 사회 이슈가 담긴 예술 참여 콘텐츠, 즉 'Social Art'를 만들어 임팩트를 확대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본 세션에는 '실시간 SNS 서비스'를 도입하여, 연사와 청중 간의 활발한 쌍방향 소통과 질의응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어진 오후시간에는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와 기업>, <4 차 산업혁명과 기업 지속가능성>, <비즈니스를 통한 소셜 임팩트>, <기업의 기후행동 전략>, <사회혁신과 지속가능경영교육>의 분과세션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주요 사회적 이슈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세션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분들과 대학생 패널이 참여하여 더욱 풍성한 논의와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과세션인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와 기업> 세션은 청년 주거빈곤, 일자리 창출, 도시경쟁력 회복 방안에 관해 다루며, 성남도시개발공사, LH, 한국타이어나눔재단 및

민달팽이유니온이 참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인 <4 차 산업혁명과 기업 지속가능성> 세션에서는 KT, 카카오 그라운드 X,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메디블록에서 기술혁신을 이용한 여러 산업 군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다음으로 <비즈니스를 통한 소셜 임팩트> 세션에서는 롯데그룹, 임팩트스퀘어, 닷(dot)의 소셜 임팩트 창출 사례를 소개하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회적 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 세션인 <기업의 기후행동 전략> 세션에서는 DGB 금융지주와 LG 전자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 세계자연기금(WWF) 및 CDP 한국위원회에서 기후변화를 둘러싼 대담과 기업들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주관한 <사회혁신과 지속가능경영교육> 세션은 소셜임팩트 측정 및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례 발표와 활발한 전문가 토론이 있었습니다.

분과세션 이후 이어진 두 번째 특별강연에는 배우이자 올림픽 해설위원, 비보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재민 배우가 청년들을 향해 도전정신과 꿈에 관한 열정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되, 모든 도전을 프로처럼 하라”는 당부의 말을 전하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과물이 아닌, 스스로와의 경쟁을 통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 3 개월간 진행된 <기업 CSR 전략 제안 공모전>의 시상식 및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의 심사평과 더불어, 최우수상을 수상한 세상의 온도 팀의 ‘갱년기 여성을 위한 A More Step’ 및 Enactus SNU 이룸 팀의 ‘폐타이어를 재활용한 경사로 제작 및 설치 CSR’ 제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회의의 결과로 메니페스토 채택 및 낭독이 있었으며, 년별 퍼포먼스인 드로잉쇼 및 경품 추첨으로 회의의 마지막을 장식하였습니다.



추후 제 4 회 Y-CSR 컨퍼런스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여 공유할 예정입니다. 본 회의에 참여한 모든 대학생, 연사자, 후원사 및 기업 담당자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 [원문보기](#)

2. 2018년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포럼 개최 안내 (11/21)

2018년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포럼 개최



노사발전재단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공동으로 2018년 글로벌지속가능경영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노사분쟁을
예방하고 기업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추세와 우리기업의 준수할 사항 등
정보를 제공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해외진출기업 관계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 개요

- **주제** 우리기업 주요 진출국 노동관련 주의사항
- **일시** 2018년 11월 21일(수), 14:00~16:30
- **장소** 전경련회관 2층 토파즈홀
- **대상** 해외진출 기업 관계자 및 유관기관 담당자 등 40명
- **주최** 노사발전재단
UN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세부 일정

| 시간 | 주제 | 비고 |
|------------------|---------------------------------------------------|-------------------|
| 14:00~14:30('30) | • 등록 | |
| 14:30~14:40('10) | • 인사말씀 | |
| 14:40~15:10('30) | •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동향 및 우수 사례 공유 (중소기업 대상 대기업 사례 소개) | UN GLOBAL COMPACT |
| 15:10~15:50('40) | • 우리기업 주요 진출국(베트남, 인니 등) 노동환경 추세 및 컴플라이언스 유의사항 | 법무법인 세종 |
| 15:50~16:30('40) | • 질의응답 및 폐회 | |

참가 방법

- 설문지 작성 후 제출: <https://goo.gl/forms/O7XkhPtJRNuOal2m1>
- 문의: 국제협력팀 정효진 선임전문위원, jhjinny@nosa.or.kr (☎ 02-6021-1078)

신청하러 가기

오시는 길

주차권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전경련회관)
2층 토포즈홀
☎ 02-3771-0114

지하철 5, 9호선 여의도역 하차
(2번출구 5분거리)

버스로 오시는법

전경련회관

지선 5012, 5615, 5618, 5713, 6513, 6628, 6649

간선 160, 162, 360, 503, 600, 662

광역 300, 301, 320, 700, 871, 10, 11-1, 11-2, 83, 88, 88-1, 510, 530

여의도역

지선 5012, 5618, 5623, 6513

간선 153, 162, 261, 262, 362, 461, 503, 753

광역 7007-1, M7625, 108, 700, 5601

여의도공원 앞

지선 5012, 5713, 6513, 6623, 6628, 6649

간선 160, 260, 360, 600, 662

광역 300, 700, 11-1, 11-2, 83, 88, 88-1

[초청장 다운로드]

[등록링크 바로가기]

본부 소식

1. [본부발간자료] SDG Bonds & Corporate Finance A Roadmap to Mainstream Investments



기업의 금융 SDG 통합 모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수조 달러에 이르는 시장기회를 가져옵니다. SDGs 시대를 맞아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개발자원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금융 부문이 관련 자원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임팩트 투자 수요가 높아지는 트렌드를 볼 때, SDGs 투자 시장에 충분한 규모, 유동성, 다양성이 구비될 경우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는 물론 공공 및 민간부문의 SDGs 활동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SDG Bonds & Corporate Finance: A Roadmap to Mainstream Investments (2018)> 책은 2030 의제 참여 기업, 정부, 지자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SDG 이행을 위해 민간 자본시장을 활용하고, 이에 따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본 발간물은 주요 SDG 채권과 함께 기업의 SDG 자원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신흥시장의 자원 조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기관 투자자들에게 국채, 기업 채권, 주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SDG 투자를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 원문보기

SDGs 소식

1.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 목표 2 – 기아종식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The Blueprint for SDGs Leadership)은 17 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기업 리더십 사례와 책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의 SDGs 이행을 위한 전략, 목표, 영향력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제시한 행동 플랫폼(Action Platform) 중 하나입니다.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은 LEAD 기업, 유엔 기구, 시민사회 유관기관들이 협력하여 개발한 UNGC 각국협회 실무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SDGs 이행을 위한 전략, 목표, 영향력 등을 구체화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성인 8 명 중 1 명, 어린이 4 명 중 1 명이 만성적인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는 만큼 기아와 영양실조는 인류의 웰빙과 경제발전에 큰 장애물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식량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천연자원이 감소됨에 따라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도상국 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전 세계 농민들은 농업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기업은 SDGs 2 번 목표의 달성을 주도함으로써 기아를 종식할 수 있습니다. 농업 및 식품 분야 외에도 화학·생명공학과 같은 산업은 세계 곳곳에 도달하는 제품 및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해 기아를 없애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아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방법은 생산성과 지속가능성, 시장접근을 높이고 소규모 농업의 부가가치를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사회에 보다 풍부하고 안전한 식량 공급을 제공하고 소규모 자작농민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높이며, 기업은 공급망과 지역공동체에 속한 농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혁신, 투자 및 지식공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농민과 노동자의 취약성을 이용해

이익을 도모하는 중개인의 필요성을 줄임으로써 수익의 상당 부분이 농민과 노동자에 분배되도록 공급망 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또한 식품 유통채널을 개선함으로써 건강한 식량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지역의 영양실조에 대처하고, 인간 및 환경 등 생태계의 건강과 연계된 발전목표들과 양립할 수 있는 유전자 변형 작물 및 가공식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은 모든 운영과정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제거를 위한 기술 및 공정과정 개발을 주도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더 나은 식품 유용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Business Action 1.

최빈국 및 취약 인구에 안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

- 커피 소매기업 A 는 개발도상국 농부들에게 10 년 간 자체적으로 수행한 농업 연구 자료를 공유해 농장의 수확량과 지속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을 줌.
- 과일기업 B 는 장기계약을 통해 재배자와 직접 관계를 맺고 지속가능한 농업 관행을 위한 역량 구축에 참여하며 고정된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소작농들에게 적절한 수입을 보장함



Business Action 2.

기업을 둘러싼 사회의 영양실조 및 기아 종식에 기여하기 위한 식품 제조, 유통 및 소매방식 변경

우수사례

- 식품 제조업체 C 는 영양부족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 영양소와 비타민을 공급하기 위해 특정 영양성분을 강화한 곡물을 개발함.
- 다국적 농업 기업 D 는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지역에 있는 영유아 및 산모들의 영양 섭취를 위해 특별영양치료식품(Ready-To-Use Therapeutic Food, RUTF)을 개발함



Business Action 3.

음식물 폐기물 및 손실 제거를 위해 노력

우수사례

- 농산물 판매기업 E 는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고 기아에 대응하기 위해 못난이 농산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함
- 식료품 기업 F 는 고기의 신선도 유지기간을 볼 수 있는 스마트 포장을 도입해 소비자가 유통기한까지 식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함.

- [원문보기](#)

2. [SDGs 시장기회] 일상생활에서의 건강 실현



영양 있는 식사와 적당한 양의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non-communicable disease, NCD)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계 사망자의 64%가 만성질환으로 사망하는 가운데, 일상 생활에서 직면하는 선택들이 건강한 선택이 된다면 만성질환으로 인한 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접근으로 사람들이 더 쉽게 건강한 식단을 즐기고 적정 수준의 신체활동을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ARKET KEY NUMBERS



전체 인구의 20%, 특히 중상위 및 고소득 국가에서 신체적 활동이 불충분함



세계 보건 및 웰빙 식품 시장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6%로 꾸준히 성장함



인구 건강 관리 시장은 2021년까지 연평균 25.2%로 4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과일과 채소 섭취를 높이는 것만으로 매년 270만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 이익을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가 식품에 대한 가격장벽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식품세, 보조금, 가격 프로모션, 바우처, 보상은 가격장벽을 완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개입 및 인센티브 방식이며, 이에 따른 세수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건강증진 노력에 활용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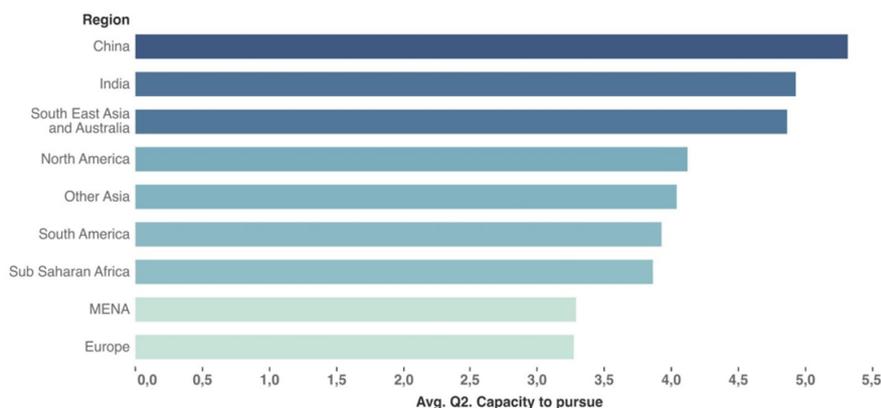
또한 식품 공급자들에게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이들이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과 같이 건강에 해롭다고 입증된 음식에 대해 기업은 건강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한편 저소득층에게는 조건부 현금 지원과 같은 메커니즘이 건강한 식품 선택을 가능케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자 강력한 사회적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활동 부족이 세계에서 4 번째로 높은 사망요인으로 꼽힘에 따라,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압축도시(compact city)를 설계하는 것도 전 소득계층에 걸쳐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70~90 퍼센트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만큼 신체 활동을 촉진하는 직장, 학교, 가정 환경의 설계는 좌식생활습관에서 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직원은 기업의 관점에서 생산적인 인력을 뜻하고, 이는 국가 보건 시스템의 부담 완화를 의미합니다. 자전거 도로, 보행자 우선도로와 같은 교통 인프라는 활발한 이동을 야기해 전체 인구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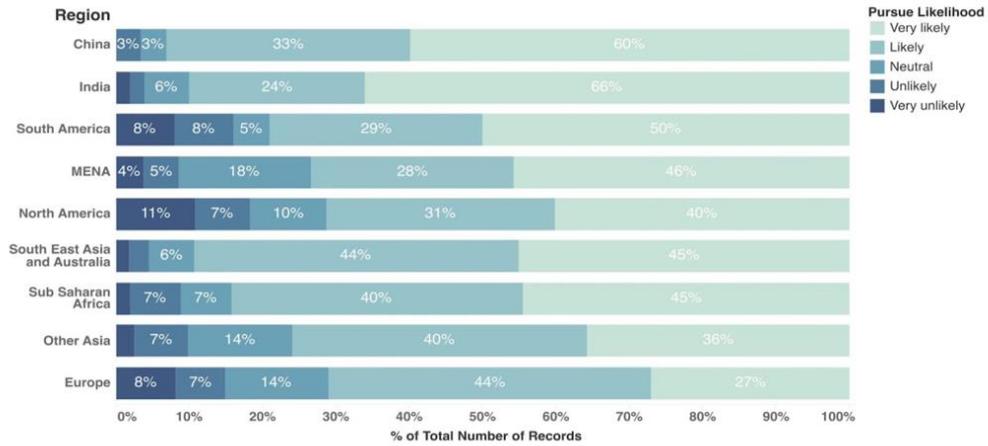
'일상생활에서의 건강 실현(Everyday Health Enablers)'이 가져오는 시장기회는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응답자들은 시장기회가 비즈니스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을 긍정적으로 보았으며, 새로운 벤처기업들에 영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역량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건강 실현(Everyday Health Enablers)' 기회 추구 역량



특히 금융 및 서비스 부문의 응답자들이 동 시장기회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정부 부문에서는 다소 낮게 평가되었으나 추후 적극 추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회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지리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건강 실현의 시장기회는 대부분의 지역사회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회사는 '일상생활에서의 건강 실현(Everyday Health Enablers)'에서
 야기되는 사업 기회를 추구할 것인가?



해당 시장은 2014 년 5500 명의 공공 및 민간부문 리더들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YouGov 연구소와 공동 진행되었으며, 연구결과 전문은
 Global Opportunity Report 2015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원문보기](#)

3. [SDGs 솔루션] 친환경 비건 의류

비건 패션 브랜드 VAUTE 는 모직 니트, 가죽 의류 수준의 기능과 품질을 가지면서도 동물에서 유래한 소재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의류를 제조합니다.



VAUTE 는 동물에서 유래한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현지에서 조달한 재료로 생산된 니트 및 액세서리를 포함하는 아우터웨어 컬렉션을 개발했습니다. VAUTE 의 제품은 100% 유기농 원단으로 제조되며 생산과정에서 동물 학대를 수반하는 가죽, 모피, 양털, 모헤어, 비단과 같은 동물성 소재를 일절 배제합니다. 예컨대 VAUTE 는 유기농 솜 몰스킨을 활용해 코트를 만들고 깃털을 대체해 인공 극세사 충전재인 프리마로프트(Primaloft) 충전재를 사용합니다. 또한, 모자는 미국의 몇 남지 않은 모자 공장에서 재활용 플라스틱 병을 사용해 제조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싱글 스레드 기술로 니트 제품을 제작해 스웨터가 단 한 번의 뜨개질로 생산되어 잔여 폐기물을 남기지 않도록 합니다. VAUTE 는 2013 년 뉴욕 패션 위크에서 최초로 비건 패션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패션의 미래는 동물을 옷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 리엔 마이리 힐가트(Leanne Mai-ly Hilgart), VAUTE 창립자 겸 CEO*

Why you should care

의류 생산 목적의 동물 사육과 가죽, 모피와 같은 동물성 소재에 화학 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여러 환경적 및 윤리적 문제를 유발합니다. 비건 문화의 지지자들은 동물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강력히 반대하며, 동물성 소재에 사용되는 약품과 장비는 생산공정에 참여하는 근로자들과 주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VAUTE 는 동물 가죽과 모피를 대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하지 않은 전통적인 생산방법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How the Global Goals are addressed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VAUTE 는 동물 소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가죽과 모피 생산공정에서 수반되는 화학물질 배출과 오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원문보기](#)

UNGC 회원 뉴스

1. 한국남동발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사회적 가치 창출

한국남동발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사회적 가치 창출

파이낸셜뉴스 | 입력 : 2018.11.13 17:03 | 수정 : 2018.11.13 17:03

공공기관 협의체 '진주혁신네트워크' 구축, 공공기관 보유한 인적·물적자원 활용



【진주=오성택 기자】 한국남동발전이 경남 진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경남지역 사회적 난제 해결에 앞장서기로 했다.

- 한국남동발전이 경남 진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경남지역 사회적 난제 해결에 앞장서기로 했음. 남동발전은 13 일 경남 진주시 월아산 우드랜드에서 '진주혁신네트워크'를 발족하고 진주 YWCA 와 함께 지역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음.
- 한국남동발전은 LH·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진주혁신도시 내 3 개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진주혁신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 활용으로 지역사회 혁신 및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활동을 공동 전개하기로 합의했음.
- 진주혁신네트워크는 취약계층 아동지원 사업을 첫 번째 협업 분야로 선정하고, 진주 YWCA 와의 협업을 통해 아동체험형 학습활동인 '도담도담 어린이와 자연이야기 Eco 숲 Concert' 행사를 기획했음. 이날 행사는 지역아동센터 및 다문화 가정 아동 200 명을 대상으로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는 체험행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음.
- 김한상 남동발전 사회가치혁신실장은 "진주혁신네트워크가 경남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및 지역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더 나은 진주·경남지역을 만드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음.

- [원문보기](#)

2. 국민은행, 착한기업 이어 여성친화기업 투자 이끈다

국민은행, 착한기업 이어 여성친화기업 투자 이끈다

여성친화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최초 선별
한국여성친화경영 골지, 기업문화 바꾸기 앞장

이나라 기자 프로필보기 | 2018-11-05 15:01:16

📄 📧 📧 글자크기 + -



KB국민은행이 사회와 환경에 기여하는 이른바 '착한기업'에 대한 투자를 발 빠르게 이끌어낸데 이어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투자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를 적극 접목해 국내 기관투자자들과 사회의 인식변화에 촉매제가 되겠다는 게 포부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여성친화기업에 투자하는 메리츠더우먼펀드를 최근 선보여 관심을 받고 있다.

- KB 국민은행이 사회와 환경에 기여하는 이른바 '착한기업'에 대한 투자를 발 빠르게 이끌어낸데 이어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투자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여성친화기업에 투자하는 메리츠더우먼펀드를 최근 선보여 관심을 받고 있음.
- 메리츠더우먼펀드는 성 다양성과 성 형평성을 두루 갖춘 기업 혹은 이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가진 기업들에 장기 투자해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견조한 수익률로 연결되는 선순환을 이루고자 만들어졌음.
- 이미 다수의 해외 기업들은 유엔글로벌컴팩트(UNGC)와 유엔여성기구(UN Women)의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이슈 플랫폼에 참여해 책임 경영을 하고 있음.
- 국민은행 관계자는 "재무적으로 탄탄하고 여성친화경영을 하는 기업이 중-장기적으로도 재무성과가 더 좋다는 게 수치로 나타났다"며 "국민은행은 연기금이나 공익법인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사회와 기업의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일조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하였음.

- [원문보기](#)

3. 컨선월드와이드, 2018 세계 기아 리포트 행사 개최



2018 세계기아리포트 **CONCERN worldwide**

분쟁
Conflict

이주
Displacement

기아
Hunger

2018 세계기아리포트
GLOBAL HUNGER REPORT

2018.11.20(화) 14:00
광화문 KT스퀘어 드림홀

2018 GLOBAL HUNGER REPORT

"난민과 이주인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1968년에 설립된 국제인도주의단체 컨선월드와이드(Concern Worldwide)는 전 세계 극빈층의 기아와 빈곤 문제해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8 세계기아리포트'는 분쟁과 이주가 어떻게 기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집중 조명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멘과 로힝야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모두 모시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I 행사 2018 세계기아리포트
- I 주제 '분쟁, 이주, 그리고 기아' (Conflict, Displacement, and Hunger)
- I 일시 2018. 11. 20. 화 14:00-17:00
- I 장소 KT스퀘어 드림홀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 I 대상 인도주의단체, 국제개발NGO, 대학(원)생 등
주제에 관심있는 누구나 총 150명 (선착순/무료)
- I 신청 11월 13일(화) 24:00까지. 온라인 사전 등록
- I 발표 11월 14일(수) 17:00. SMS 개별 통보
- I 문의 pr.korea@concern.net

PROGRAM

| | | |
|------------|------------------------------|---------------------------------------|
| 세션1 | 2018 세계기아지수 | 이준모 컨선월드와이드 한국대표 |
| | 내가 분쟁지역에 가는 이유 | 김영미 시사인 국제문제편집위원 |
| 세션2 | 예멘의 이주와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의 현주소 | 제인 윌리엄슨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관 |
| | 40년간의 추방, 로힝야족 인도적 지원의 교훈 | 루시아 에니스 컨선월드와이드 아시아총괄디렉터 |
| 세션3 | 패널 및 참여자 토론 | 사회 송영훈 강원대학교 교수 |

발표 주제 및 연사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시통역을 제공합니다

I 주최 **CONCERN** worldwide 컨선월드와이드 | 후원  외교부  주한아일랜드대사관

[\[등록링크 바로가기\]](#)

CSR 뉴스

1. '베트남 물 절약' 기여한 유니레버, '아프리카 농가' 살린 사브밀러



산업 > 재계

'베트남 물 절약' 기여한 유니레버, '아프리카 농가' 살린 사브밀러

[착한기업, 세상을 바꾼다@] '사회적 가치' 찾는 글로벌 기업을 물절약 세제·카사바 맥주, 비즈니스·사회기여 두마리 토끼

(서울=뉴스1) 오상현 기자, 송상현 기자, 박동해 기자 | 2018-11-05 12:15 송고



물 절약 유니레버 CEO가 지난 9월 7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유엔글로벌compact 한국협의회 CEO 조찬 포럼에서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강연을 하고 있다. ©News1

◇'물 절약 세제' 동남아 석권, 베트남 물 부족 해결 기여

- 베트남은 남북으로 메콩강이 길게 가로지르고 국토 대부분이 바다와 맞닿아 있으나 사용 가능한 물이 많지 않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됨. 지하수에 중금속이 적지 않고 하수처리 시설이 부족하며 오염된 물이 강으로 흘러드는 등 수질 오염이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임.
- 영국과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다국적 생활용품 기업 유니레버(Unilever)는 2006 년 물 절약형 행균 세제인 '컴포트 원 린스(Comfort One Rinse)'를 개발해 이듬해 베트남에 출시했음. 기존 섬유유연제는 세탁물을 헹구는 데 '세 양동이'의 물이 필요했지만 '한 양동이'만으로도 족한 혁신 제품임.
- 결과는 대성공으로, 인도와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인근 국가로 신제품 판매를 확대해 이 지역에서도 시장점유율 1 위로 우뚝 서게됨. 경제적 측면의 동기에 사회적 가치(물 부족 해결)가 포개져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된 것임.

◇'카사바 맥주'로 아프리카 시장 40% 점유, 사라진 '불량 밀주'

- 영국의 사브밀러(SABMiller)가 2011 년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출시한 맥주 '임팔라'(Impala)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비즈니스 혁신 사례임. 카사바는 고구마와 유사한 열대 구황작물로 모잠비크 제 1 농산물임. 사브밀러는 맥주의 주원료인 보리가 아닌 카사바로 맥주를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음.

- 사브밀러는 모잠비크 정부를 설득해 맥주 세금을 40%에서 10%로 낮추고 저렴한 가격의 '임팔라'를 출시하였음. 그러자 모잠비크의 카사바 생산량은 헥타르(Ha)당 0.5t 에서 20t 으로 늘어났고 7 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만들어졌음. 세수가 늘고 농가 소득도 연 1000 달러 가량 늘어났고 맥주가 대중화하면서 '불량 밀주'에 따른 사회 문제도 줄어들음.
- 사브밀러의 아프리카 시장 점유율은 40%로 뛰어 전체 매출 중 3 분의 1 이 아프리카에서 발생하게 되었음. '경제적 가치'(수익성)와 '사회적 가치'(공익성)가 함께 창출된 사례임.

- [원문보기](#)

2.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과 청년들의 시그널

(사회책임)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과 청년들의 시그널

CJ제일제당·유한킴벌리·코웨이 등 CSR 활동 적극적 이행
유엔글로벌콤팩트, 지난 3일 제4회 Y-CSR Conference 개최

뉴스마토 입력: 2018-11-12 08:00:10 | 수정: 2018-11-12 08:00:10



2016년 UN은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채택했다. 이는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 개발목표)가 종료된 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공동 목표이다. SDGs는 2030년까지 빈곤 종식, 기아 종식, 모든 사람의 복지 증진,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 신장, 국가 간의 불평등 완화 등의 17가지 주요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이뤄져 있다. 인류의 보편적 사회 문제, 지구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경제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국가적인 노력을 넘어 개별 기업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1999년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경제포럼에서 기업들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세계화로 인해 발생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2000년부터 UNGC(UN Global Compact: 유엔글로벌콤팩트)가 발족되어 기업들에 지속가능성과 기업시민의식 향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SDGs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 SDGs 이행을 위해 여러 CSR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있음. CJ 제일제당은 글로벌 아미노산 연구개발, 친환경 바이오 프로젝트를 핵심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다양한 사료·식품용 아미노산 제품을 출시했고, 생산과 소비까지 전 프로세스에서 친환경적 방식을 채택하였음. 이는 '기아해소'(SDGs 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 보장'(SDGs 12) 면에서 큰 의미를 지님.
- 또 다른 기업으로 유한킴벌리는 다양한 CSR 활동을 통해 '육상생태계의 보호'(SDGs 15), '지속가능한 경제성장'(SDGs 8),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 신장'(SDGs 5) 등의 SDGs 를 이행하고 있음. 1984년부터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도심과 지방에 5000 만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는 목표를 달성하였음.

'SDGs 세대' 청년들의 역할은?

-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SDGs 이행을 위해선 기업뿐만 아니라 개개인들의 인식전환이 전제돼야 함. 특히 이 시기에 사회경제적 참여가 가장 활발한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함.
- 실제로 작년부터 아프리카에서는 'The African Youth SDGs Summit'를 발족해 SDGs 이행에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첫 모임에서는 25개국 425명의 청년들이 참가해 환경, 성, 장애, 경제 및 사회 발전과 관련된 SDGs 주제들을 논의했음.

- 또, 지난 3 일 'SDGs 세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년들의 시그널'이라는 주제로 제 4 회 Y-CSR 콘퍼런스가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됐음. 대학생 및 대학원생 300 여명이 참여했으며 대학생 CSR 콘퍼런스로는 국내 최대 규모임. Y-CSR 콘퍼런스는 미래의 주체인 대학생들이 CSR 와 SDGs 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SDGs 의 이행에 있어 기업 및 청년들의 역할과 협력을 강조하였음.

- [원문보기](#)

3. “사회적기업 육성, 2022년까지 일자리 10만개 창출 기대”...제 3차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 2022년까지 일자리 10만개 창출 기대”...제 3차 사회적기업

정부가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성장할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2022년까지 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은 지나친 이윤 추구보다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시하는 기업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재갑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8년 제 5차 고용정책 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 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년)을 의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성장할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2022년까지 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음. 사회적기업은 지나친 이윤 추구보다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시하는 기업을 말함.
- 고용노동부는 9일 이재갑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8년 제 5차 고용정책 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 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년)을 의결했음.
- 기본계획에 따르면, 먼저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한정된 사회적기업의 현행 법률상 정의를 손질해 ‘혁신적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란 개념을 추가했음. 또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기준도 완화하여 현재 ‘5명 이상 고용, 주 20시간 이상 근무’인 인증요건을 ‘3명 고용,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완화해 등록제 연착륙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 사회적기업의 제품·서비스 소비 확대를 위해 다음 달부터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쇼핑몰도 구축함. 또 창업부터 재도전까지 전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도 마련함. 또 사회적기업의 질 관리를 위해 민·관 합동의 ‘사회적가치평가 운영위원회’를 꾸려 ‘사회가치 지향성’과 ‘운영의 민주성’, ‘고용성과’ 등 14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에 등급을 부여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해 공공기관·지자체가 활용하도록 할 방침임.

- [원문보기](#)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11 월 2 일부터 11 월 15 일까지 UNGC 본부의 승인을 받아 UNGC 본부와 한국협회에 가입한 회원사는 없습니다.

2. COP/COE 제출회원

11 월 2 일부터 11 월 15 일까지 6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교통안전공단
- CJ 대한통운
- (주)티비에이치글로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전력공사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첫 COP 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 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매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후에도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와 한국협회에 동시 가입한 회원들은 한국협회에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회비 납부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연회비는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치확산에 사용됩니다.

3. 2018 년 연회비 납부 안내

- 4/4 분기 연회비 납부 예정 기업 (납부 기한: 2018 년 12 월 28 일까지)

※ 청구서 재발행을 원하시면 협회 사무처로 연락 바랍니다.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삼덕통상, 기아자동차,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사)유엔한국협회, (주)아진트랜스,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아시아정당국제회의사무국, 스완커뮤니케이션, IBK 기업은행, 교통안전공단, 국민연금, 울산항만공사, 씨엔커뮤니케이션, (주)에프엠브이디, 한국인권재단, 한국투명성기구,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진해장애인복지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 에스오일, LG 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 티비에이치글로벌, 국민건강보험공단, 태광실업, 한국남부발전, (주)제씨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미술등록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열매나눔재단, 한국가스공사, SK 이노베이션, LG 전자, KT estate, (주)나인, (주)서스틴베스트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http://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